



김기자가 가다

끝나지 않은 아픔, 원폭 피해 한국인위한 불자들의 원력

9월 14일 「히로시마 원폭 한인희생자 추모 위령제」 봉행



▲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행진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행렬의 선두에 선 법등 통리원장



▲ 히로시마 평화의 탑에 참배하는 총지종 대표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14일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히로시마 대회에 앞서 '히로시마 평화공원'내(內)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서 「히로시마 원폭 한인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다.

종단협 사무국장 각우 스님의 사회와 천태종 화산 스님, 구수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위령제는 회장 자승 스님과 주요 참석 인사들의 헌화로 시작되었다.

합천 평화의 집 연암스님은 현황보고를 통해 "현재 까지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

다. 다만 전체 피폭자 70만 명 중 약10%가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은 양국이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2, 3세로 이어지는 원폭 피해의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한국의 불교도 또한 자비의 실천과 공업중생으로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라고 잊혀져가는 원폭 피해자들의 삶을 상기 시켰다.

회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광복 70주년. 이전보다 더 나아간 것도, 더 나아진 것도 없지만, 잊었던 그대들의 애통함은 많은 아들이 공감하고, 덧없이 흘러 보낸 세월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자는 고개들 자신이 없지만, 지금의 평화가 당시의 비극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여러분의 헌신으로 성립되었다는 자명한 역사의 진실위에

서있습니다."며 전 종단의 화합된 힘으로 부처님의 자비증생 사상으로 평화를 지켜가자고 당부했다.

서장은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도 추모사에서 "총 46 차례의 위령제 중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시는 큰 스님이 모두 동참하시는 법회는 처음입니다."며 이번 위령제를 추진한 종단협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부회장 회정 진각종 통리원장은 "죽음을 넘나들었던 노동과 기아에서 살아온 생존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또한 여전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고, 오늘 이 위령제를 계기로 생존 피해자들을 돕고 치유할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며 한국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피해자들의 구제에 앞장설 것을 발원했다.

이번 위령제에는 「제1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히로시마 대회」에 참가한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및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와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세워진 한인 희생자 위령비는 1970년 4월에 건립되었다.

일본 히로시마=김종열 기자



▲ 위령탑에 헌화하는 법등 통리원장



▲ 위령탑에 헌화하는 화령정사, 법우정사, 우인정사



▲ 추모 위령제 전경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 천 사	강 순 시	9/14	10,000
	이 희 권	9/1	10,000
	이 희 권	9/22	10,000
관 성 사	황 성 녀	8/26	10,000
	인 선	9/18	20,000
기 로	심 지 장	9/17	10,000
	원 봉	9/11	10,000
	지 선 행	9/11	10,000
	해 정	8/27	10,000
	대 관	9/18	10,000
	밀 공 정	9/18	10,000
	법 수 원	9/18	10,000
	법 장 화	9/18	10,000
	법 지 원	9/18	10,000
	불 멸 심	9/18	10,000
	사 흥 화	9/18	10,000
	상 지 화	9/18	10,000
	수 증 원	9/18	10,000
	선 도 원	9/18	10,000
	총 지 화	9/18	10,000
	일 성 해	9/18	10,000

단 음 사	법 연 지	9/18	10,000
덕 화 사	반 야 심	8/28	10,000
밀 인 사	정 정 희	8/31	5,000
	이 채 원	8/27	10,000
	이 연 주	9/7	10,000
	이 기 상	9/7	10,000
	안 옥 진	9/7	10,000
	이 성 수	9/7	10,000
	박 주 연	9/7	30,000
	이 혜 성	9/8	30,000
	이 수 연	9/7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9/2	10,000
벽 룡 사	양 정 현	9/7	10,000
	양 지 현	9/7	10,000
수 인 사	무 명 씨	8/31	10,000
실 보 사	이 순 옥	8/26	10,000
선 립 사	황 귀 석	9/8	10,000
	수 정	9/10	10,000
실 지 사	조 성 우	9/2	10,000
	정 경 자	8/28	10,000
	정 우 석	9/14	10,000

서울경인교구			
인간방생비	9/7	850,000	
일원어린이집			
강 경 화	8/26	10,000	
김 용 미	8/27	10,000	
하 재 희	8/26	30,000	
서 선 숙	8/26	10,000	
박 문 실	8/27	10,000	
김 지 영	8/26	10,000	
구 미 자	8/31	10,000	
천 소 영	9/14	10,000	
운 천 사	반 야 화	9/10	50,000
정 각 사	변 순 개	9/14	10,000
	김 문 수	9/16	10,000
	탁 상 달	9/14	20,000
지 인 사	승 효 재	9/11	10,000
	지 성	9/11	10,000
	허 성 동	9/15	30,000
초록어린이집			
김 종 남	9/21	10,000	
김 태 윤	9/21	10,000	

총 지 사	김 태 오	9/21	10,000
	법 등	9/2	30,000
	이 인 성	9/8	30,000
	장 동 옥	9/3	30,000
	백 지 순	9/6	30,000
	박 정 희	9/18	10,000
	신 용 도	9/18	10,000
	박 정 희	9/18	10,000
	손 경 옥	9/19	1,917
	손 경 옥	9/22	10,000
흥 국 사	지 정	9/11	20,000
혜 정 사	최 영 래	9/21	10,000
화 음 사	무 명 씨	9/2	10,000
사원명무기재			
	김 갑 선	9/21	10,000
	정 희 연	9/10	20,000
	무 명 씨	9/16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내년 진각종 주최 WFB총회는 종교적인부분 강조해 개최 티베트도 회원인 만큼 참가자격있어 초청장 보낼것”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기자간담회서 밝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가 9월 23일 총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9월~10월경 진각종이 서울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WFB총회는 종교적인 부분을 강조해 개최하겠다”며 “최근 이벤

트적으로 흐른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특히 회정정사는 “개최지 지정시 WFB 본부에 이부분은 책임을 저달라고 했다”며 “중국에서도 회원자격 참가는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정정사는 “불교가 발전하는 동기가 되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길 희망한다”는 덕담을 한 뒤 “진각종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밀교 종단으로서 차세대 역점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진각종의 차세대 역점사업은 내년

4억 예산으로 아시아불교문화페스티벌 을 열 계획이며, 한국밀교문화총람 발간에 3년간 3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천명했다.

한편 진각종은 10월3일부터 한달간 스리랑카 태오, 네팔 지모의 국제포교사 교육을 할 계획이며, 그 부인 2명을 국제포교사 후보로 교육한다.

또 종단의 포교소를 네팔 카투만두 에11월 28일 개소할 예정이다. 포교소 규모는 현지건물 3층을 임대해 105평 규모이다.

스리랑카 카루나포교소도 게스트 하우스 시설을 갖췄으며, 어린이 교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불련 창립 52주년 기념법회 봉행

동국대 정각원, 9월 22일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52주년 기념법회가 9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대불련총동문회 백효흠 회장과 53년차 이채은 회장, 신호철 초대 대불련 회장, 김윤권 초대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 대불련 동문과 대불련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지범 대장경연구소 소장의 사회와 대불련총동문회 구도위원장 일휴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기념법회는 운몽은 53년차 집행위원이 산대강령 제창, 이명진 53년차 집행위원이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채은 대불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련을 창립시켜주시고, 항상 대불련에 관심가져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부터는 창립 기념행사를 재학생들이 챙겨서 여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격려사에서 “2016년에는 대불련 활성화에 주력하자”며 “두 단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획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하다보면

새로운 지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철 초대 대불련회장은 축사에서 “초기에 창립 준비위원들의 열의가 강했고, 스님들과 교수들도 열심히 지도의 해주고, 덕상 이한상 거사의 재정지원까지 이어지며 승승장구했었다”며 “백효흠 총동문회장님께서 제2의 새롭게 발전하는 대불련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강한 만큼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윤권 총동문회 초대회장은 축사에서 “52년전 이날 창립된 대불련은 한국 불교사에 획기적인 일이었다”며 “초대의 목표가 진부하게 됐지만 부처님의 사상과 불성의 개념을 마음속에 새기는 대불련이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도선 91년도 대불련 회장은 “대불련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원가를 크고 새롭게 하기보다는 동문대회등에 참가해 새로운 동문정서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동문과 재학생들 기념법회 참가자들은 2부 순서로 다과를 함께하며, 대불련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BBS불교방송,(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

포교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지원금 10억 원 지원받아

BBS불교방송 (사장 선상진)은 “불기 2559(2015)년 10월 7일(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으로부터 불교방송 발전 및 포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상진 사장은 지난 5일 확대 간부 회의에서 “9월 30일에 열린 시무식 내 격려사에서 김규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방송에 우선 10억 원을 지원해주시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김 이사장

께서 ‘성년이 된 불교방송이 내부 출신 제1호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제2의 개국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통해, 자립할 계기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며 불교를 위한 불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불교와 생명 존중」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선 사장은 “특별 예산까지 편성하여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지원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모두의 바람을 담은 응원과 지원에 힘입어 제2의 창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방송 포교에 전력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답례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그동안 대한불교진흥원은 1989년 개국 준비부터 현재까지 BBS불교방송에 방송 발전 및 포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동안 누적된 지원총액은 210억 여원 인 것으로 집계됐다.



▲ 7대종단 대표들이 생명 함께심는 행복 슬로건에 오곡을 넣는 포퍼민스를 하고 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전통종교 유교등 국내 7대 종단이 충북 괴산에 모여 유기농과 종교에서 추구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일깨우며 공존과 화합을 모색했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9월 19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내 에서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을 주제로 제19회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어운경 성균관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회장은 일정상 참

석하지 못했다.

개회식에서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자승스님은 “행복을 이루는 씨앗은 때를 구분하지 않고 심을 수 있다. 어느 계절이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 어느 계절이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 어느 계절이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 어느 계절이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기농 엑스포의 근본 목적도 생명을 되살리는데 있다.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서 유기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오는 종교문화축제도 생명을 근본으로 생명·화합·행복·종교의 메시지와 상통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승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대표들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민권 차관이 쌀과 보리, 콩, 수수, 기장 등 오곡을 생명박스에 담아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이라는 글자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온 나라와 국민에게 행복한 웃음으로 전달되기를 기원했다.

축제의 대미였던 생명콘서트에서는 아울(대북공연), 팡페라 공연, 비보이공연, 유지철 갈라쇼와 함께 가수 홍진영, 박상철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에앞서 각 종단은 종교 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했다.

불교계는 괴산 개심사(주지 석재) 주관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 이주여성이 직접 참여해 정성으로 준비한 사찰음식 맛보기와 ‘연잎밥 만들기’ 체험과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또 천주교는 목주만들기와 교황님 얼굴 그리기, 원불교는 손수건 만들기과 자전기로 만드는 주스, 유교는 유전/도포입기와 읍례 체험, 천도교는 청수모시기 체험과 이천식전 체험, 민족종교는 친환경 수세미와 전통매듭 열쇠고리 만들기, 기독교는 티셔츠 프린팅 등을 준비했다.

종단 대표들은 체험부스를 돌며 서로의 종교행사를 격려한 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준비한 ‘생명나무’ 잎새에 손도장을 찍어 ‘생존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종단 대표들은 괴산군 연풍면 일석마을 사과농원에서 농민들과 함께 사과따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을 후원해 주시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만다라 요양원, 바라밀 공부방, 초록 어린이집,

일원 어린이집, 포레스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공익 복지재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보시행의 근본으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원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사회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법등 합장



양평, 피안이 되다 10월 25일까지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전시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자. 피안에 도달하였네. 아!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 서동억-Pegasus wolf

〈반야심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피안으로 향할 것을 권하며 예찬을 한다. 불자들의 이상향인 피안이 양평군립미술관(관장 이철순, www.ymuseum.org)에 펼쳐졌다. 10월 25일까지 열리는 제4회 양평을 빛낸 원로작가전에서다. 2012년 시작된 양평을 빛낸 원로작가전은 그동안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원로작가를 출생연대별로 개최하여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의 미술계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왔다. 한국 현대미술과 함께 살아온 작가의 자화상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다.

올해는 1941년생 동갑내기 류민자, 송계일 화백이 전시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60년대 전통적인 한국화에서 출발하여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한국회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류민자 화백은 1960년대 정통 한국화에서 출발한 한국화가로 1980년대에 추상미술 작가로서 작품의 다양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여 왔다. 한국화 재료를 버리고 서양화 재료를 수용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화풍으로 정착했다. 현대적 표현방법을 자유롭게 자기화시키면서 자연적 감성과 형상적 발형 및 회화적 본질을 존중하는 독자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송계일 화백은 1960년대 초에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 회화의 독창성을 접목하여 독자적인 회화세계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극사실주의와 자연주의 구상회화에 몰두하던 시기를 지나 1980년대에 먹과 채색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독자적인 회화양식을 전개해 생략과 응집으로 함축되는 조형세계로 진입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추상에 의한 극도로 단순화된 형상에 이르고 있다.

'1975, 화엄경', '2014, 정도' 등 대작을 이번 전시에 내놓은 류민자 화백은 양평에 피안의 세계를 펼쳐낸 장본인이다. 류민자 화백은 중, 고등학교시절에 그린 드로잉작품과 채색 작품을 이번 전시에 함께 전시한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던 류민자 화백은 대학시절에 그린 수련, 인물, 산수 등을 통해 졸업 후에도 한동안 작품에서 사실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이후 그가 보여준 다양한 창작활동은 류 화백을 미술계의 떠오르는 스타작가 반열에 올려놓는다.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문예진흥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류민자 화백은 자연과 인간과 풍경이 어울린 야성적이고 풍요로운 풍경을 보다 밀도감 있는 조형세계로 추구하는 작품을



▲ 이창진-수평(水平)

선보여 왔다. 종교적인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자연이 지닌 우주적 신성함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중고생 시절에 탐닉했던 사실성에서 출발한 그의 예술 세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상을 입혀가며 도식적으로 형상화되어 왔다. 전국 각지의 신성한 나무들을 형상화한 도식성은 현재에 와서는 작품마다 무색의 잔상과 현대적 번안으로써 도상을 보여준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작품과 하나가 되면서 나는 작업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었다.’라고 밝힌 류민자 화백의 예술관은 치열하게 정진하는 수행자의 구도행을 닮아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불이판을 담아낸 그의 작품은 ‘내가 있음으로 대상이 있다’는 불교의 연기관과 ‘사랑과 미움 속에서 부대끼며 사는 이유는 집착’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덧입힌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고 마음이 없으면 미움도, 고통도, 원망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내는 류 화백의 작품론은 불교의 ‘일체유심조’를 떠올리게 한다.

그 뿐일까. 류 화백은 단청색을 화폭에 옮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사조나 시류에 쉽게 휩쓸리지 않은 채 독자적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류 화백은 한국화와 서양화는 물론 불교와 기독교, 인공과 자연처럼 분리와 단절에 익숙해져 있는 세간의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작품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꾀해왔다. 한지와 캔버스, 전통채색과 아크릴을 오가며 작업한 그의 작품들에서 작가의 이 같은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류 화백이 한국화라는 자신의 장르를 뛰어넘은 건 서양화가이자 남편인 고 하인두 화백의 영향이 컸다. 한국화가인 그와 서양화가인 남편 하인두 화백이 함께 개최한 부부전은 한국화와 서양화의 벽을 허물어버렸다.

한국화로 출발했지만 류 화백은 전통의 기법과 표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일궈냈다.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영역을 확장해온 것. 때문에 류 화백의 작품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별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그가 추구하는 자유는 무명에서 자유로워지는 피안과 닮아있다.

류씨가 그동안 화면에 일관되게 묘사해온 대상은 산, 나무 등 자연이 많다. 작가는 이에 대해 “자연의 아름다움은 온 누리에

충만해 있다. 아름다움은 감동이 쌓인 결과이며 여기서 분출되는 감흥은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승화된다”고 말한다. 자연뿐 아니라 불상, 탑, 인간 등도 소재로 등장하곤 했다.

이번 전시에는 1970년대 하인두, 류민자 부부전에 힘입어 1973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73,상', 1975년 '1975,화엄경', 1980년 '1980,상-1', 1984년 '1984,군상', 1988년 '1988,군상', '2009,생명의노래', 2014년 '2014,정도', '2014,정도-1', '2014,화합' 등 사공을 초월한 대작들을 선보였다.

류민자 화백은 끊임없이 화면 위로 떠오르는 형태를 잡아내고 그 형태가 솟아난 이유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또 다시 의문을 더하여가는 선(禪) 수행자처럼 화면을 운영했다. 30년을 일관되게 산, 나무, 불상, 탑, 인물과 같은 특정 형태를 전작한 류 화백은 형태의 탄생과 전개에 대한 질문과 해답, 색과 구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드라마처럼 촘촘하게 엮어 작품으로 펼쳐놓는다.

초대작가 송계일 화백은 초기에는 남화풍의 실경산수로 한국화 정신을 추구해왔으나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적 토대를 만들었다.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성과 조형방법을 추구해온 송 화백은 기존법식을 따르는데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회화성을 창출해 왔다. 주요작품은 '1964,생황', '1986,화-2', '1987,산-2', '1991,음과 양의 공간-2', '2006,벽과 공간' 등의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제4회 양평을 빛낸 원로작가' 전과 함께 미술여행-3 가을 프로젝트 '공존coexistence' 전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전시는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상호



▲ 송계일-취벽2



▲ 류민자-생명의 노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시로 한국에서의 추상표현주의 활동으로 나타난 창작들이 고스란히 전시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밀착과 시대적 흐름을 조망하면서 세대 간의 존중과 배려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모습이 전시 작품의 면면에서 역력히 보인다.

‘공존coexistence’ 전의 초대 작가들은 한국에서의 모더니즘 전개와 함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온 작가들이다. 30명의 현대미술 중견작가들의 작품이 빛어내는 공존 전은 원로전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공존시대를 상상하도록 돕는다. 배려와 존중, 더불어함께 살아가기를 담은 희망의 커뮤니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조형의 세계와 창작 정신, 정체성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도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지닌 작품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서동억의 'Pegasus_wolf', 이창진의 '수평水平Water_always_finds_its_own_level', 곽승용의 '오래된 미래' 등이 전시됐다. 작품들은 단순화와 생략에 의해 제작되어 특징적 아름다움으로 부각시키고 소통을 강조한 균제와 통일성에 이르러 다채로운 묘법이 전시의 품격을 높인다.

전통에서 발전한 걸림 없는 원로의 작품에서부터 차세대미술과 신개념미술로 무장한 현대미술작가들의 두 가지는 전시는 소통과 배려를 가르치며 불교의 연기론을 전시장에 펼친다.

전시장에 펼쳐진 피안의 세상을 만끽하고 나면, 무르익어 가는 가을을 느끼며 양평이 자랑하는 고찰 용문사와 수종사를 둘러보며 진리의 피안을 다시 한 번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구성작가 강지연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 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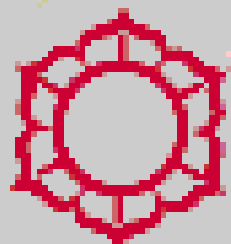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불교총지종 단상 '총지니' 차별화



불교총지종

정통밀교 총지종 총지종보가
총기 44년 10월 16일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교도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성년이 된 총지종보는 진언밀교 흥포를 위한
최선의 방편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총지종보 전국통신원 일동 합장



불 교 충 지 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충지중보

총기 44년
2015년 10월 7일
음력 8월 25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91호

제11회 불교충지중 한마음 경로법회 봉행

경주 대명콘도에서 전국 교도 약 600여명 동참

불교충지중 통리원은 경로 효친사상의 실현과 교도 평생 복지의 구현을 위해 제 11회 '한마음 경로잔치'를 9월 21일 경주 대명콘도에서 이틀 간 봉행했다.

전국의 65세 이상 교도 600명이 동참한 이번 어르신 잔잔치는 개회법회를 시작으로 교도 장기자랑, 품바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개회법회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가을이 되니 가까웠던 동기들도 하나 둘 속세

와의 인연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니 감성적으로 약간 우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불자인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즉 현재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고 늘 수처 작주의 가르침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인 같은 생활을 하면 언제나 밝은 미래가 온다는 것을 항상 부처님께 고맙게 생각해야겠습니다. 흘러간 강물은 되 돌아킬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금생에 도

를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고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는 뜻입니다."며 불퇴전의 수행 정신을 통한 즉신 성불 이루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오늘 법회는 보살님과 각자님들께서 '한마음 경로잔치'라는 주제처럼 이틀동안 함께 웃고, 부처

의 마음처럼 넉넉하고 자비로운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어 행사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행복과 자비의 웃음 보따리를 가득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며 중단의 발전과 교락을 같이한 교도들을 위로 했다.

개회법회에 이어 교도 장기자랑과 품바 공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주=김종열 기자



▲ 제11회 한마음 경로법회(경주 대명콘도)

부처님의 자비행(慈悲行)으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

9월 15일 제18차 한중일 불교교류협의회 일본 히로시마 대회 개최



▲ 제18차 한중일 불교 교류대회(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제18차 한중일 불교교류회의의 히로시마 대회가 9월 15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국제회의장에서 봉행됐다.

한중일 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정토문주 총본산 지은인 문적)은 "이번 대회장으로 마련된 히로시마는 원자 폭탄 투하에 의해 한반도,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미국의 포로를 포함한 10만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한 순간에 파괴 되어버

린 세계 최초의 도시입니다. 피폭 70년의 이번 여름 일본 불교계의 많은 중파와 단체들은 이 곳에서 피폭자의 진혼의 위령과 평화 기원의 법요를 개최하였습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인 위령비와 공양탑에의 헌화와 참배 그리고 세계평화 기원 법요를 거행하게 되므로 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의 역사와 히로시마 시민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며 개회를 부처님 전

고하고 이번 대회가 동양 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한 불제자들의 간절한 서원이 이루어지길 서원했다.

한중일 대표단은 삼국의 단장을 선두로 평화의 등불을 앞세우고, 원폭 희생자 공양탑과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 참배하였다. 300여명의 한중일 승가와 불자들이 평화 공원을 조용히 행진하는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 전쟁과 폭

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불사였다.

이어 삼국의 전통 불교 의식이 봉행되었다. 먼저 일본 측 예불에서 타케 카쿠초 스님(한중일 불교교류 협의회 이사장)은 세계 평화 기원문 봉독에서 "전후 70주년을 맞아 전쟁 중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희생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 드림과 함께, 히로시마 원폭 피폭자를 시작으로 전쟁 중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에 대하여 애도의 뜻과 위령의 진심을 바칩니다."며 참회의 서원을 하였다.

중국 측 예불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밍썽(明生) 스님은 "무시이래 사바세계 중생들은 탐진치로 배가잡진 발신의구 조제 악업 무량무변 전란이 일어나고 재난이 빈번하여 삼도팔난 수고무간 난독출리하여 삼국의 불제자들은 무상심을 발하여 매년 모여 정성봉축 예불송경하오니 이 수송공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생을 기원하나다."라고 세계평화기도문을 부처님 전 발원했다.

한국 측 대표는 예불의식과 부회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의 발원문 봉독, 반야심경의 순으로 진행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생명의 이치와 다를 바 없듯 평화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채울 수 없으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연기법에 의해 발원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한 세대, 한 국가의 문

제를 넘어 후손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모두가 공감하는 성찰과 치유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요원한 꿈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 한중일 불교 지도자들은 대화와 설득, 양보와 화합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실천하여 각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며 세계평화 기원문에서 서원했다.

이어 원폭 피해자인 '오시다 후미에' 여사의 피폭 전, 후의 피해와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으로 참가자들은 다시는 지구상에 원폭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삼국대표단은 점심공양 후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한국측 발표자로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산 스님이 「인간 본래의 마음인 평화」와 진각종 교무부장 법경 정사가 「중생의 행복을 위한 불교적 실천」을 발표했다.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삼국대표단은 공동선언문에서 상호 유대를 확인하고 현대와 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불교도로서 다시금 기도를 소중히 생각할 것 △중생 포교에 대한 자세 재점검할 것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적극 실천할 것을 채택했다.

이번 대회는 15일 오후 6시 히로시마 그랑비아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을 끝으로 폐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

회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만찬담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의 불자들이 매년 만나서 인류에 희망을 주고, 공존번영을 모색하는 황금유대를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3국 불교의 원활한 교류를 강조했다.

히로시마=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감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86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개강식 총기 44년 10월 13일(화)

회합식 총기 44년 10월 16일(금)

1 장 소 | 불교충지중 통리원

1 대 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충지중 종령 효강

제35주기 종조멸도절 대구 · 경북 교구 합동법회

9월 8일 포항 수인사에서 300여명 동참



▲ 제35주기 종조멸도절 대구 · 경북 합동법회

제35주기 종조 멸도절을 맞아 대구 · 경북 교구가 포항 수인사에서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이전까지는 각 사원별로 멸도절 법회를 봉행했다.

법어를 대독했다. 교구장 안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조 멸도절 행사를 본산인 총지사는 서울 · 경인 교구 합동으로 봉행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원 단위로 불공을 올렸습니다. 대구 · 경북 교구는 회의를 통해 올해는 교구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종조님의 열반을 추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멸도절 행사를 함께 모여서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며 처음으로 봉행되는 합동 법회의 의의를 되새겼다.

이날 법회에서 대구 · 경북 교구 스승 및 교도들은 이 땅에 밀교종흥의 새 역사를 쓰신 원정대성사의 극락왕생과 종단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서원을 담아 염송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실지사 박병성 각자, 법안정 보살

장남 박상오 박사 미국 유학 장도에 오른다.



▲ 박상오박사의 장도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 실지사 교도들

총지종 서울 실지사(주교 법우정사)는 9월 6일 월초 회향불공을 마치고, 전 교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유학길에 오르는 박병성 각자(강원대학교 교수)와 법안정 보살의 장남인 박상오 박사(강원대 연구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물생명과학 전공으로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멀리 춘천에서 서울 실지사로 다니는 법안정 보살은 평소 신심이 두텁고 용맹정진의 불퇴전의 자세로 수행정진하기로 유명하다.

법안정 보살의 부군인 박병성 교수(강원대 동물생명과학과)는 동물생명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동물 사료와 복지 분야 연구의 대가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물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인 아들 박상오 박사는 이미 대학원 재학시절 다수의 연구 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게재하여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우수학술연구상을 수상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아틀란타 주 조지아 대학에 박사 후 과정에 입문하는 박상오 박사의 장도를 실지사 전 교도가 비로자나 부처님전 서원했다.

포항 수인사 한가위 이웃돕기 백미 나눔 행사

9월 23일 포항시 중앙동 주민센터에 전달



▲ 이웃돕기 백미 전달식(포항 수인사)

포항 수인사(주교 안성 정사)는 9월 23일 오전 포항 중앙동 주민센터에 교도 보살님이 무주상 보시한 백미(200kg)를 전달하고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기를 서원했다.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는 “수인사 보살님 중 익명으로 보시한 공양미를 중앙동 관내 불우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편히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서원했다.

포항 수인사는 자원봉사 단체인 ‘수인회’가 결성되어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도시락 배달, 경로잔치 공양지원, 김장나누기 행사로 포항시 봉사 마일리지 인정 단체로 활동 중이다.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태허 조사 첫 포교지인 탑골공원에서 사부대중 500여명 동참



▲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법회(탑골공원)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법회가 10월 7일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봉행되었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승스님을 비롯한 주요종단 총무원장과 총지종 총무부장 인선 정사가 참석했다.

관음종 포교원장 대흥 스님의 개막선언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 대한불교 관음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늘진 곳을 찾아 꿈과 희망 그리고 빛을 비추려 합니다. 복을 비는 종단이 아니라 복 될 일을 하는 종단이 되려고 합니다.”며 중생 속으로 다가가는 관음종의 새로운 50년 시작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와 원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길을 열어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관음종 선대 조사들과 종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관음종 발전을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축하사에서 “한국불교 종건종단으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 꽃을 피워주기를 바랍니다. 태허 조사께서도 새로운 조류와 새로운 역사에 맞는 불교를 주창하셨듯이 이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맞는 불교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며 불교종단을 대표해 축하의 인사를 했다.

일한불교협회 회장 후지타 다카시 조지 스님은 “태허 홍선 대종사는 6.25 동란 이후 탑골공원에서 설법을 계속하시면서 민중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편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으시며 반세기 관음종이 세계평화와 불교홍흥 그리고 중생제도에 진력하고 계신데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교단의 더 한 층의 융창번영을 기원하며 축하의 인사를 대신합니다.”며 일본 불교를 대표해 축하를 했다.

종구불교협회 부회장 마오장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오랜 시간 중한 일 삼국의 불교 우호교류 업무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황금유대, 관계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실천을 하신 오랜 친구입니다.”며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의 인연을 말하며 중한 우호의 선도를 이끄는 종단이 되기를 부처님께 서원했다. 이외에도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축하를 했다.

이날 법회는 식전 행사로 프로젝트 ‘P+야’ 음성공양으로 오도송, 반야심경 등 불교 의식곡을 공연했고, 식후에는 선아무용단의 관음종 창종 50년 “아름다운 한마당 공연이 이어졌다.

관음종은 1957년 일승불교헌정회를 설립하고 1965년 대한불교불입종으로 태허당 홍산스님이 창종하고 제1대 종정으로 추대했다. 1988년 대한불교관음종으로 개명했다. 종로탑골공원-김종열 기자

총지정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총지종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교사 채용 공고

불교총지종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동해중학교에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2015년 11월 09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교도 및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위탁시행 추진일정

급별	시행공고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과목
중등	2015.10.13(화)	2015.11.09. (월)~11.13(금)	2015.12.05. (토)	-교육학(논술) -전공 (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	2016.1 (일자미정)	-교직적성 심층 면접 -수업능력평가 (교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 실험)

제11회 한마음 경로법회

총지종 교도 및 불자 어르신을 위한 큰잔치



“광복 70주년 기념,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및 국태민안 기원”

아시아 불교문화 축제



초대합니다

삼보에 귀의 하옵시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불교대학교’가 주관하여
〈광복 70주년 기념,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및 국태민안 기원〉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불교문화축제를 서울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불교대학교에서는 원로 대덕 큰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포함한 교계
내의 귀빈들을 널리 모시고 대회의 취지를 더욱 드높이고자 합니다.
민족통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금번 행사에 수송하신 귀빈들의 마음 어우
러져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두루 충만하도록 수희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59년 10월 3일

한국불교대학교 총무원장 도 산 합장

■ 일 자 : 불기 2559(2015)년 10월 20일(화) 늦은 3시 ~ 10월 22일(목)

■ 장 소 : 서울 여의도 문화의 마당

■ 주요행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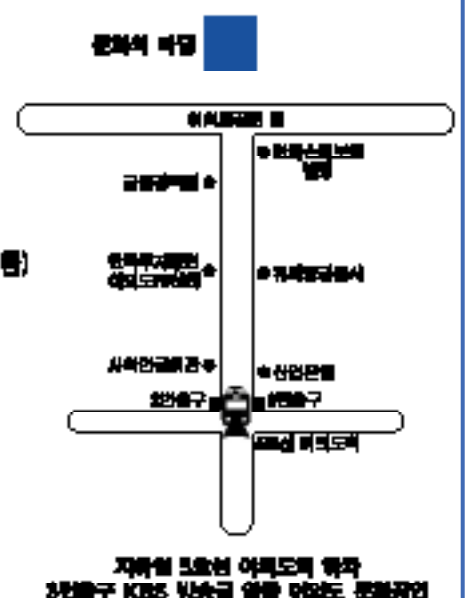
• 10월 20일(화) : 일제한마당

- 식전행사 (오후 3시 ~) : 난타공연, 국악 및 초청가수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서도소리 이수자 경은희, 백은자, 김복희, 김경희, 홍지순)
영산재1부
- 본행사 (오후 5시 ~) : 개막식, 영산재2부, 초청가수 공연,
(임태숙, 김해림, 3인조편의 키린, 임지훈, MK, 이규석, 유지철 듀즈, 여형스즈, 신기행, 안지현)
해의탈교 의식공연, 폐막식
본행사 진행: 조영구

• 10월 21·22일

- 행사수계법회 : 태고총림 선암사
- 세미나 : 아시아 불교문화의 전통과 미래

■ 문 의 : 02-739-3390



제18회 한 중 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위령탑
합동
추모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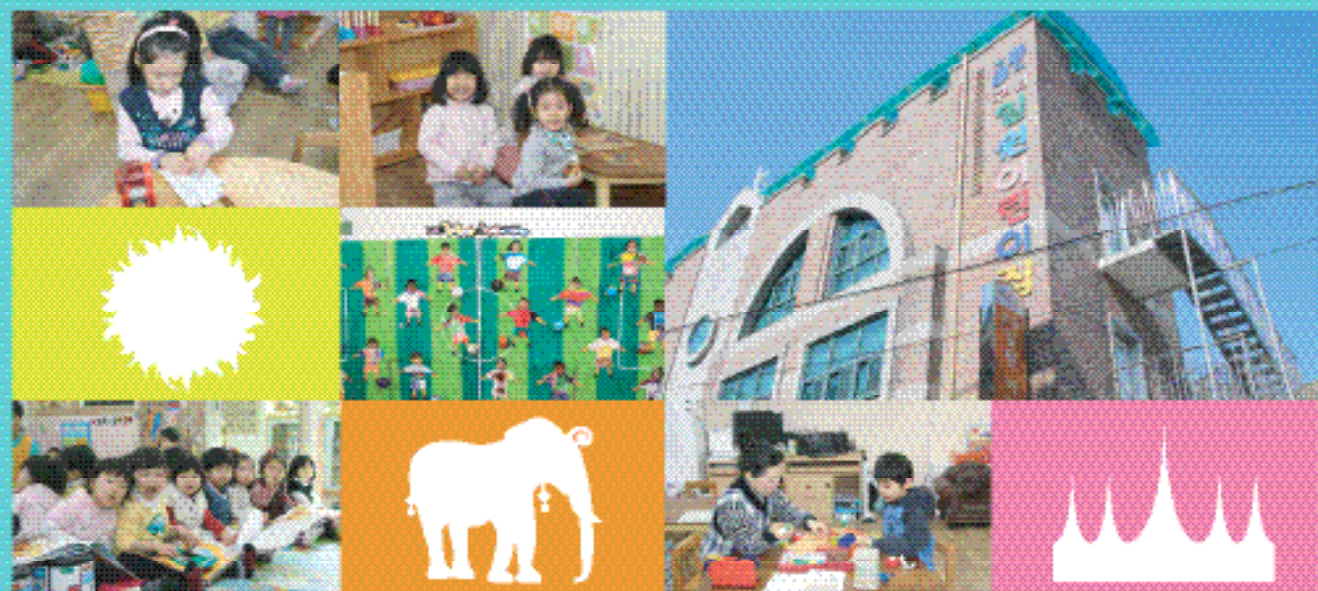
한중일
본대회



주요사원
참배 및
관불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령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광령로 590길 53 역원리 5단지 아파트 광덕동 1층
사회복지재단 ☎ 02-445-2326

원점회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0)**

태장계만다라의 열 번째 궁실(宮室), 『허공장원(虛空藏院)』의 제존(諸尊)

허공장원(虛空藏院)은 태장계만다라의 아래쪽, 즉 서방(西方)에 자리잡고 있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공장원은 불보살의 지혜와 복덕이 허공과 무변(無邊)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중생의 소원에 따라 복덕을 베푸는 제불보살(諸佛菩薩)이 계시는 궁실(宮室)이다. 따라서 허공장원(虛空藏院)의 중존(中尊)은 허공장보살이 된다. 허공장보살은 허공과 같이 무변(無邊)한 지혜와 복덕(福德)으로써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성취시켜주는 보살이다. 모든 불보살이 그러하듯이 오로지 중생을 위하여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구제하는데, 그 가운데 허공장보살은 지혜와 복덕이 허공(虛空)에 비유된다.

**허공장보살은 허공과 같이
끝없는 지혜와 복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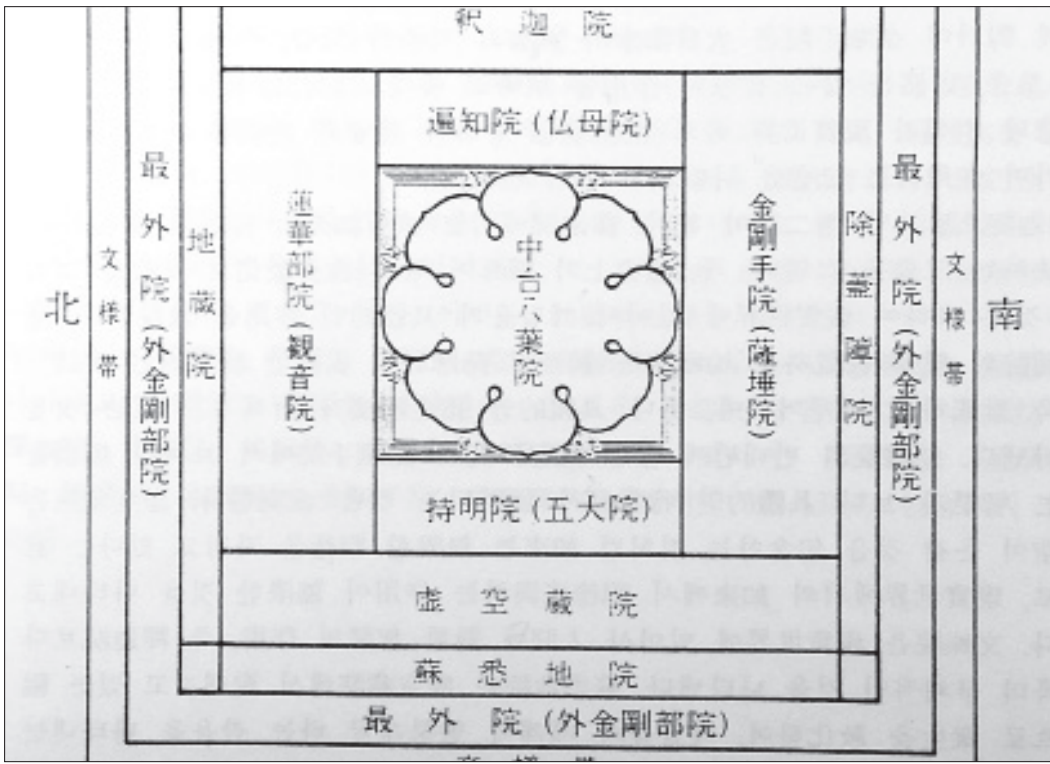
허공장원은 그림1)에서 보듯이 중앙의 중대 팔엽원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지명원(持明院)이 있고 지명원 다음에 자리잡고 있다.

중대팔엽원에서 지명원, 허공장원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배치는 바로 지혜와 관련이 있다. 중대팔엽원은 여래의 지혜와 자비 그자체를 의미하고, 지명원은 이러한 여래의 지혜를 사자(使者)인 명왕(明王)들이 중생의 번뇌를 타파하고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공장원은 여래의 지혜와 복덕이 무변(無邊)하여 허공에 가득 차 있어 그 복덕으로 중생들의 구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줄여서 말하자면 지혜에서 시작하여 지혜로써 끝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 허공장원에는 그림2)와 같이 22보살과 권속으로 4비천(飛天), 2사자(使者) 등이 배열되어 있다. 그 가운데 중심되는 보살이 허공장보살이며, 그 왼쪽에는 천수천안관자재보살, 오른쪽에는 금강왕보살이 있고, 열 분의 삼바라밀보살 등이 있다.

허공장보살은 이름 그대로 허공처럼 광대(廣大)하여 걸림과 장애가 없는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자유자재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로서 불부(佛部)의 과덕(果德)을 나타낸다.

그런데 대부분의 궁실들은 불부, 연화부, 금강부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되는데 허공장원은



▲ 그림1) 태장계 만다라 허공장원의 구조



▲ 그림2) 태장계 만다라 허공장원(검은색 네모칸)

이와 달리 불부, 연화부, 금강부의 삼부(三部)가 한 궁실 속에 모두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허공장보살은 불부(佛部)에 해당하고 좌우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과 금강장보살은 연화부와 금강부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서 허공장보살은 불부(佛部)의 공덕을 나타내고,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은 연화부의 과덕(果德)인 자비(慈悲)를 나타내며, 금강장보살은 금강부의 과덕(果德)인 지혜(智慧)를 나타낸다.

그래서 허공장보살을 끝없는 지혜와 복덕을 지니고 있는 보살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를 존상(尊像)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3)에서 보듯이 오른손에는 검(劍)이 들려 있는데 이는 여래의 지혜를 나타내며, 왼손에 있는 연꽃 위의 보주(寶珠-보배구슬)는 여래의 복덕(福德)을 나타낸다. 그리고 몸에 걸치고 있는 백색(白色)의 천의(天衣)는 여래의 청정무구(淸淨無垢)를 의미하며, 머리에는 오불(五佛)이 장식된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이는 복(福)과 지(智)가 완만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만덕(萬德)을 장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꽃 위의 보주(寶珠)는 세 개의 핵이 들어 있는데 이를 삼판보주(三瓣寶珠)라 한다. 삼판은 곧 법신(法身) · 반야(般若) · 해탈(解脫)이라는 삼덕(三德)을 의미한다. 그래서 허공장의 결인도 이러한 배경에서 삼판보주 형태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이를 허공장인(虛空藏印)이라 하는데, 그림4)와 같이 허심합장을 하고 두 엄지를 가운데 안으로 넣고 여기에 두 인지(人指)로써 이를 누르는 손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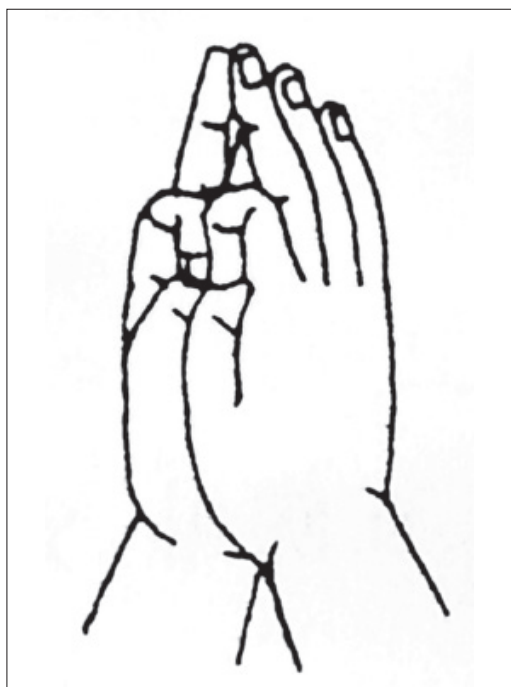
허공장보살을 본존으로 삼아 허공장인을 하고 백일 동안 진언을 백만번 소리내면서 외우면, 모든 교법(教法)의 글과 뜻을 암기할 수 있다고 하여 수학(修學)하는 자들이 많이 행했다고 전해진다.

‘나막 사만다붓다남 아카사사만다누가타 피 시트람바라다라 사바하’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허공과 동등한 자여, 색색의 옷을 걸친 자여, 사바하’

〈다음호에서 소실지원(蘇悉地院)의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그림3) 허공장 보살



▲ 그림4) 허공장인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충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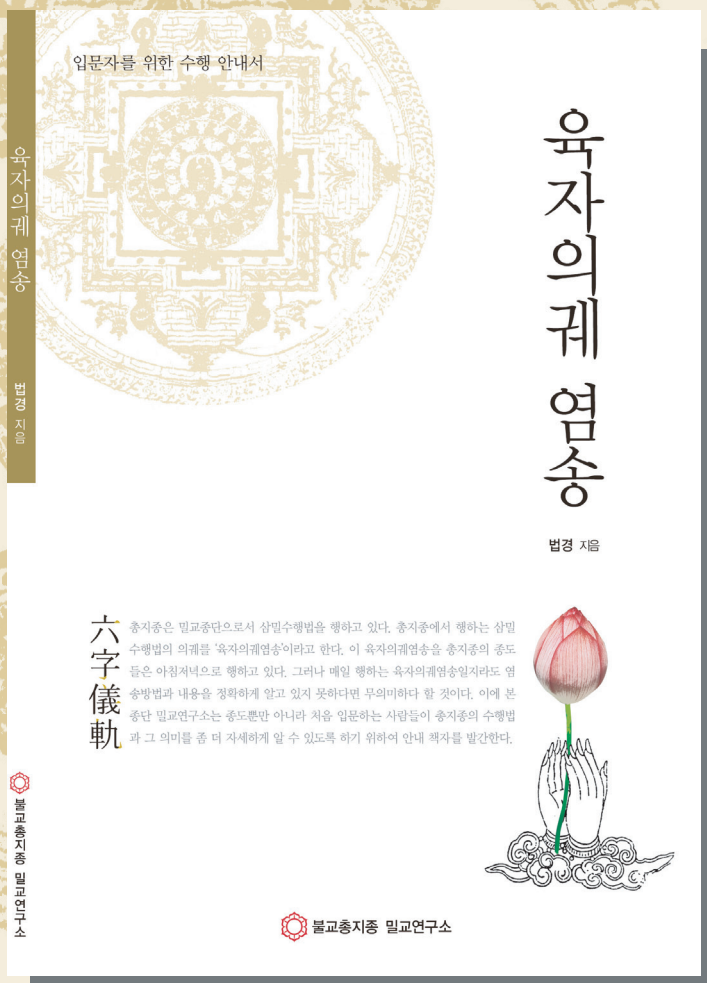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 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충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 ‘육자의귀 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충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충밀교, 수행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충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유 물 로 보 는
비로자나불



▲유형문화재 제31호 간송미술관 소장
석 비로자나불좌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1호
간송미술관 소장 석 비로자나불좌상 (石 毘盧舍那佛 坐像)
지정(등록)일: 1974.05.12
소재지: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성북동)
시 대: 고려시대

화강암으로 된 높이 1.5m의 좌상으로 간송미술관에 전
시되어 있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로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큼직하게 솟아있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 주름 선의 표현에서는 형식화된
모습이 보인다. 손은 양 손을 가슴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왼손 감지를 감싼 형태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모양이다. 불상이 앉아있는 4각의 대좌(臺座)에는 겹으
로 연꽃무늬를 새겨 넣었다.

이 불상은 형식화된 옷 주름 등을 고려할 때 고려 중기
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추정 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17. 옥환수(玉環手) 진언



옴 바나맘 미라야 사바하

만약 남녀의 심부름꾼을 얻으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VISUAL 불교종전

글/그림 황수일
cafe.daum.net/oorissam

부유한 자의 어려움 **가난한 자의 어려움**

회장님, 공익단체에서 기부할 요령해 줘요?
어, 그래? 한 천 만원쯤 기부해버려.
부처님을 만 뵈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국민자들기 세게본부입니다. 기부물.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니...
하! 그날, 천 만원쯤 기부해 버리고 싶다.
충실하면 보시책거자 어렵다.

권전 속에 전리가 있다던데.
마, 그런 거 필요없어요. 지금 주가를 살펴마세.
요즘삼해문어하!
권전속에 이런 좋은 밑술미 있다니

운동들 안 했더니 배가통 나왔군. 골프나 쳐러 나가 볼까?
물집에 대한 통곡을 버리고 절에 나가 108배를 해보심이 어떨까요?
음에 좋은 요약! 8개월 할부로 한번 드셔보세요.
절에 나가서 108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무관세음.
부거운 담뱃을 버리시오
에게 얼마짜리 골프채인데 버려!
스커 시루리로 한통이.
이별, 매너없는 전화기 같은지. 한 번만 더 하면 108배인데, 급한 전화인가?

어차요! 골프채가 너무 팔잡아요.
자세도 틀렸고!
뭐 눈에는 봐야 보인다.
미친 골프채가 아닌데?
모르. 선지식 만나지는 볼렸군.
뜨뜨뜨, 마음 찾기 힘들겠어.
뭐앗! 태배를 쓰레기를 속에 넣고 간단다고? 예리잇! 너쁜놈아, 근대 욕을 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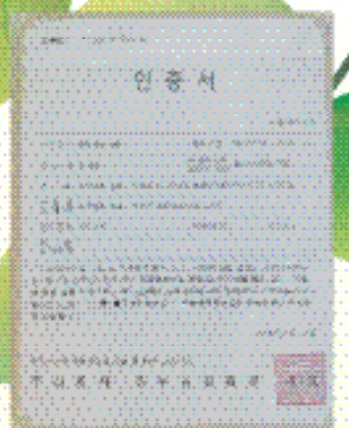
내용참조: "불교종전" 불타편 367p-5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5,000원
무료배송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면역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 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